

H · I · F · I · & · H · O · M · E · T · H · E · A · T · E · R

AUDIO

Special 2018년을 빛낸 오디오 시스템 Part.1

Focus

Gryphon Scorpio S
Atoll IN200 Signature
KEF LSX

2019

Monthly Magazine



Cover
Vimberg Mino

VIMBERG

www.audioh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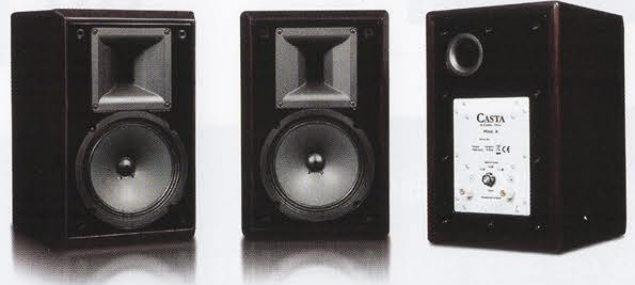
정가 12,000원

Best Matching

Casta Acoustics New Reference Series Model A Norma Audio Revo IPA-70B

이탈리아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우아한 오디오 시스템

글 | 김남



수입원 SP-오디오 (02)2156-7590

Casta Acoustics New Reference Series Model A 가격 590만원 구성 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 베이스 리플렉스형 사용유닛 우퍼 20.3cm, 트위터 2.5cm
재생주파수대역 40Hz-24kHz 크로스오버 주파수 1.8kHz 임피던스 8Ω 출력
음압레벨 93dB/W/m 크기(WHD) 26.5×41.3×29.5cm





Norma Audio Revo IPA-70B 가격 530만원 실효
출력 70W(8Ω), 140W(4Ω) 아날로그 입출력단 RCA×
6 입력 임피던스 10kΩ 주파수 응답 0Hz-800kHz 크
기(WHD) 43×7.5×35cm 무게 15kg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티타넬리는 13세 때부터 자기 집 창고에서 앰프를 만들고, 각종 고물 스피커를 해체하고 분해·조립을 거듭해 보던 끝에 20세가 되기 전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름을 알렸다. 그 후 이 청년은 각종 스피커에 집중하더니 2011년에는 스피커의 정점은 혼 제품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굳히고 20대의 나이로 혼 스피커 전문의 카스타 어쿠스틱스를 설립했다.

당연히 본 시청기는 혼 스타일의 스피커이다. 2웨이 구조로 고역에 혼이 걸려 있고, 셀룰로오스 파이버 우퍼는 1.8kHz 이하의 대역을 담당한다. 1.8kHz라면 대부분의 중역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사실상 특성이 모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오디오 마니아라면 한 번쯤 혼형 스피커를 써 보고 싶을 것이다. 한 번 혼 스피커를 들어 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음악의 생동감, 사실감이 무엇인가를 즉시 깨닫게 되지만, 혼 음의 직선성을 살리기 위해 방이 약간 커야 한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카스타 어쿠스틱스의 제품은 레퍼런스 라인으로 모델 A, 모델 B 프리마, 모델 B 디바, 모델 C가 출시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C가 가장 대형기이고, B가 그다음, A는 2웨이의 가장 소형기라는 점이다.

본 시청기는 2웨이의 소형기인만큼 방의 넓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이즈이다. 스탠드에 거치하면 여느 소형기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인클로저가 몹시 고급스러우며, 후면에는 고역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스위치가 있어서 방 안의 넓이에서 더 자유스럽다. 조정 범위는 -2~+1dB.

제작자는 오랜 연구 끝에 제로 컴프레션 다이렉트 프론트 로딩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확립, 혼 스피커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살리면서도 특유의 왜곡을 제거해 이상적 스피커를 만들어 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닛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을 직접 가공하는데, 개발한 유닛을 타사에 상업적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기술의 상세한 내역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고역의 챔버 부분에 신기술이 투입되었고, 마그네틱은 알니코라는 점들이 약간 독특하게 보인다.

매칭한 앰프는 이탈리아의 오디오 메이커 노르마 오디오의 베스트셀러 인터앰프 제품이다. 노르마는 전자 장비 제조업체인 오팔 일렉트로닉스에 속해 있으며, 이 메이커는 계측과 관련된 전자 장비를 제작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디오에도 진출을 했다. 노르마는 1987년에 NS 123이란 앰프로 데뷔한 뒤 1991년에 오팔 일렉트로닉스 산하에 들어갔고, 그 후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했다.

현재 동사가 생산하는 인터앰프는 IPA-70B와 IPA-140 두 가지인데, 출력에 따라 구분이 된다. 각각 70W와 140W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IPA-70B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온다. 프론트 패널을 심플하게 설계했으며, 만져 보면 알루미늄 절삭 가공을 잘해서 새시 자체의 감촉이 무척 좋다. 옵션으로 포노단, 그것도 MM과 MC 입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할 경우 이름 끝에 'PH'가 붙는다. 또 다른 옵션으로 본격적이고 스펙의 USB 입력도 있다. 그럴 경우 이름 끝에 'U'라는 알파벳이 붙는다. 이것은 입력되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8배 업 샘플링해서 아날로그로 출력하며, PCM 24비트/192kHz, DSD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PC 파일로 고음질 음원을 활용하는 이들에게 각광 받을 만한 스펙이다.

두 기종을 매칭해 울리는 소리는 편안하고 그윽하며 성숙한 맛이 으뜸이다. 고급기답게 놓으며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당당한 소리가 나온다. 음장감이 대단하고 약간의 두터움이 주는 장점이 많다. 이번에 매칭한 카스타 어쿠스틱스 스피커도 매력적이지만, 감도가 훨씬 낮은 스피커에 매칭하면 섬세함과 청결감이 단연코 증가하며, 어떤 스피커와도 매칭이 좋은 안심할 만한 고급 인터앰프다. (A)